

한승홍 / 장신대 교수

박윤선의 신학사상(Ⅲ)

성서적 신앙의
본래성을
파수하려는
이시대
마지막
칼빈주의적
신학 파수꾼
가운데
한 분이
정암
박윤선이다.

I. 들머리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 지금까지 100년의 신학은, 미국의 보수주의 신학과, 한국인의 의식저변에 침잠되어 있어 항상 역동적 힘으로 용솟음치며 활화산처럼 생동성을 가진 기복주의 신앙(미신)이 혼합된 기복신앙의 양태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한국적 신앙형태나 양태가 한국적 기독교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 계기가 되어왔던 것도 특이하다.

그런데 오늘의 신학적 논의는 지금까지의 기성의 신앙양태와는 다른 지평에서 그 단초적 결행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1960년대 초에 서부터 한국적 신학을 모색하려는 새로운 신학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1960년대 중반에는 한국적 신학을 정립하기 위한 신학논쟁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복음과 상황, 말씀과 삶, 기독교와 문화 등의 상관 관계론적 접근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개척자들 가운데 몇몇 신학자들은 과감하게 기독교 신학 자체를 한국적인 문화양태 속에서도 계시된 숨겨진 신의 역사 자체의 우주적 보편주의에서 해석해 보려 했다. 다시 말해서 한국 문화의 한 신화를 삼위일체신론적으로 해석하면서 원기독교의 신앙형태, 즉 한국에서의 기독교적 신론을 주

장하기도 했다. 이것은 그 주장의 진리성을 따지기 이전에 이미 한국 신학자들의 신학논의는 1960년대를 기점으로 서서히 우리 식의 기독교 신학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고, 또 사실 이러한 신학운동에 정열을 쏟으며 신학발전과 체계화에 노력을 경주했다는 매우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때부터 신학논쟁은 고전적 신학논쟁의 지평인 성서주의, 보수주의, 철저한 금욕적 기독교 생활 윤리 등으로부터 신학함의 역동성과 포용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형이상학화된 신학논쟁의 지평을 삶의 상황에서 열어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어떤 신학자들은 종교상대주의를 수용하여 자기 신학을 세우려 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부류의 신학자들과 유기적인 교류를 갖고 있는 듯하면서도 철저히 구별되며, 매우 강한 사회의식과 계급의식을 내세우며 민중주의를 신학의 새로운 장으로 삼으려는 신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역사의 증언은 새로운 운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자체로만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현재를 생성시킨 원류적 사상을 찾아 그것을 현실화하는데 충실한 면도 높이 평가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한국에서 논의되는 잡다한 신학들에 대하여 그것의 본래성 자체가 무엇이어서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한승홍 / 연세대 신학과와 같은 대학의 연합신학대학원 및 원혜대, 뽕방겐대에서 공부했고, 아켄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장신대 교수이며, 「문화종교학」, 「기독교 교육 철학사상」 등의 책을 썼고, 「20세기 종교사상」, 「20세기 사회사상」, 「사회철학이란 무엇인가」 등의 책을 번역했다.

우리는
그가
시대적 도전을
받을 때마다
응답하면서
신학의
보수성을
점진적으로
변용해온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

우리는 신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신학의 본질에 관한 질문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오늘까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 문제는 신학의 본질규정에 연관되어 신학논쟁을 거쳐왔다. 이러한 신학사적 논쟁들을 거치면서 신학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되었고, 이질적 문화나 문명 속에서 동화되어가면서 사실상 원기독교의 원복음성을 상실하며 2000년의 역사 진행 속에서 하나의 과정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다. 그러므로 신학의 절대성이 부재하고, 동시에 성서적 신앙 자체가 이미 본래성을 잃어버린 오늘의 신학은 어쩌면 유명론적 신학 위치 이상의 영예를 누리지 못하는 지도 모른다. 신학이 이미 신학적이 아니고, 기독교가 이미 기독교적이지 아니며, 성서적 신앙이 이미 성서적이지 아닌 이런 현실에서 가장 궁극적인 요청은 성서적 신앙에의 복귀 혹은 성서적 신앙의 전통을 변화된 세계에서도 계속 이어가려는 신학함의 자세이다. 신학의 신학 본래성을 보수하려 하고, 성서적 신앙의 본래성을 파수하려는 이시대 마지막 칼빈주의적 신학 파수꾼 가운데 한분이 정암 박윤선이다.

박윤선의 신학은 이미 하나의 추종세력을 이루고 있으며, 이 세력을 표방하는 새로운 신학함은 '경건과 학문'이라는 두가지 본질을 통일적 실체로 자기화하는 행동신학성에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약간 차이점을 갖고 있지만 박윤선의 제자들이 그의 신학함을 정의·규정해 주기보다 이미 더 오래 전부터 장로회신학대학 신학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신학이념이 되어 있어 장로교(통합)의 신학으로 정립되어져 있는 신학의 요청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윤선과 그의 추종자들은 온건보수주의적, 아니 복음주의적 입장을 칼빈주의의 태두

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구하면서 오늘의 신학을 변체된 성서진리의 핵심에서 의미화하려 하기 보다는 불변적 진리 자체에의 확신을 다시 확인하며 신앙화하려 한다. 바로 이 점에서 박윤선의 신학함은 통합측의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신학을 절충·조화하며 오늘의 현장에서 신학하려는 중용적 신학추진과 큰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시간에 박윤선의 신학은 고려신학교 시절에 보여주었던 성서근본주의에 가까운 극단적 보수주의 경향—극우적 이념주의, 철저한 배타주의, 경직된 성결주의 등—에서, 합동신학교 시절에 보여주었던 후기의 관용적 복음주의 경향으로 점진적 전환을 이룬 것은 그의 사상적 발전과정에서 쉽게 눈에 띄는 점이다.

물론 우리는 그의 신학의 발전사를 논할 때 그의 신학 입장의 전기와 후기의 차이점을 논증적 제시없이 쉽게 단정해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신학사상의 전기와 후기는 현저하게 차이점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 쉽게 비교되기는 하지만, 발전하는 단계간의 차이는 쉽게 그 차이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흐르지 않는 것 같은 고요한 강물과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흐르는 수면 밑의 운동과 비유될 수 있다. 우리는 그가 시대적 도전을 받을 때마다 응답하면서 신학의 보수성을 점진적으로 변용해왔던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면 그의 신학의 중요한 논제와 쟁점은 무엇이며, 그 핵심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웅변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신학이 오늘의 한국 신학계에 던져주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의 작품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분석·해석하며 평가해 보도록 하자.

우리는
그에게서
번뜩이는
성서주석 학자의
섬광을
발견할 수 없는
반면,
온유하고
인자한 범부의
한 모습을
발견한다.

II. 박윤선과 성서주석의 신학

박윤선의 최대 관심은 성서주석에 있다. 그러므로 그가 매우 자랑스럽게 술회하곤 하였듯이 그의 생애 가운데 40년의 세월을 주석사업에 몸을 던져왔던 것을 하나의 은총처럼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곤 했다. 이런 주석사업에의 헌신은 그가 일생동안 성서주석에 삶을 걸었다는 것과 동시에 이런 자세에 따라 그는 성서 해석학에 지대한 학문적 관심을 가졌던 것을 암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학자적 태도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한국 성서신학계에 공헌했는지, 특히 성서해석학 분야에서 그가 그의 40년 주석역사의 삶에 비추어 얼마나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입지를 세웠고 후대에 보여 주었는지는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가 성서 해석학이나 성서 주석방법론 및 학파적 특색을 가진 성서해석학 이론에 관한 저서 한 권, 아니 독창적 학술논문 한편 남기지 않았다는 점은 그의 학문성과 그의 학문도를 의심케 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인격과 꾸준한 주석작업을 향한 열정은 결코 그가 학자로서의 전문 논문을, 혹은 전문 서적을 남기지 못했다고 과소평가하기에 앞서 높이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정암 박윤선의 인생편력과 신학사상을 개관하며 그의 신학성을 추려 조형물로 만들어 한국 신학계에 제공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예리하고 독창적인 학자적 일가견(一家見)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신학사상 부재의 신학자라고 한마디로 잘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에게서 날카롭고 번뜩이는 성서주석 학자의 섬광을 발견할 수 없는 반면에, 온유하고 인자한 범부(凡夫)의 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며, 성서 66권을 단독으로 주석한 이러한 평범 속의 비범한 모습에서 성서의 사람이 가진 실체를 보게 된

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그의 실체를 독선적인 학자보다는 온유한 행정가로, 신학자보다는 설교자로, 성서주석학자보다는 주석가로 보며 그의 삶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는 그의 학문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 앞서 그의 성서주석관을 극히 단편적으로나마 추출해 낼 수 있는 그의 글 “한국교회 주경사(註經史)”를 면밀히 분석·검토하며 그의 주석이론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다.

“한국교회 주경사”는 「신학지남」 1968년 3월호에 발표된 글로서 「신학지남」 창간 50주년 기념호에 한국 주경역사를 세 관점에서 요약한 글이다. 이 글은 일종의 한국교회 50년의 성서주석 변천을 간추려 기술한 것이며, 중심논지는 칼빈주의에 정초된 사상이며,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1장 9항)를 따르는 것을 고백하며 서두를 열고 있다.

성경은 성경으로야 해석된다는 개혁주의의 원리를, 우리는 그대로 믿는다.¹

그의 이 첫 마디 문장은 그의 성서관을 반영한 신앙고백이다. 그는 철저히 칼빈주의적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그의 신학사상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그 자신의 독창적 신학과 성서관을 발견할 수는 없다. 그는 유학시절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비로소 칼빈주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에게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영향은 지대하였다. 그에게 신학정형이 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리고 특히 메이첸(J.G. Machen)과 반틸(Van Til) 교수의 신앙적 영향은 그를 철저한 칼빈주의자요, 근본주의 신학노선에 경향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했다.

그는 스스로 근본주의 경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의 신학경향 및 신학자세를 눈

**박윤선은
그의 사상을,
논술이나
논리적인
쟁점화를 통한
주장으로
파악하지 않고
매사에
신앙적
자세를 갖고
독백형식으로
표명하고
있다.**

여겨 보면 그는 고려파에 몸담을 때부터 벌써 자신의 신학의 길이 철저한 근본주의적 성서주의에 빠져 있음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가 고려파와 결별하여 고려신학교를 떠날 때의 선언적 입장은 극보수주의에서 어느 정도 탈극보수주의적으로 변화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의 언행의 총체적 모습과 실체는 근본주의적 성서주의, 혹은 달리 표현하면 한국에서의 정통보수주의의 한 맥을 이루고 있는 개혁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윤선의 신학사상에서 칼빈주의의 핵심이상을 찾아볼 수 없으며, 동시에 그 자신의 새로운 신앙양태나 신앙표현의 단초적 시도마저도 발견할 수 없으며, 거의 그의 주석, 설교, 논술, 논설 같은 글들에서 전혀 그 자신의 독창적 주장과 학설을 찾을 수 없다. 거의 칼빈주의의 한 면이나, 칼빈주의 신학자들의 어떤 한 부분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이른바 복사판을 보는 것 같은, 혹은 번역판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질 때가 많다. 이것은 그가 시대나 상황, 대상의 변화나 해석의 다양성 등을 차단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칼빈주의 성서해석과 칼빈주의 신학노선에 충실한 추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는 50년대 초 반년동안 화란에서 화란 칼빈주의에 접근한 바 있지만 그러나 그의 근본입장은 철저한 미국의 성서주의적 근본주의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어쨌든 그의 실체는 그 자신의 독립된 존재성을 들어내어 표현된 것이 아니고, 수용된 사상을 정도에 맞추어 집행했던 충성된 종의 역할을 한 것처럼 한국교회 앞에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윤선은 그의 신학사상을 전개함에 있어 논술이나 논리적인 쟁점화를 통한 주장을 피력하는데 매우 소극적이거나 때로는 무시하고, 오히려 이런 학술적 논거를 통한 논리적 증

명 보다는 매사에 신앙적 자세를 갖고 독백하는 형식으로 역설 혹은 표명하고 있다. 즉, 그는 어떤 신학적 문제를 논증하거나 “왜” 또는 “어떻게”라는 논거를 필요로 하는 물음들에 경청하며 풀이해 가는 기술법을 사용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단정적 표현법을 쓰며, 거의 고백형식의 글로 연결지어간다. 그래서 그는 글을 단조롭고 단정적으로 쓰며, 거의 다른 학설을 끌어들이며, 논쟁, 비판, 혹은 배척, 수용하는 학문적 태도를 지양하고 오직 그의 독단적 결론들을 명제적으로 제시 나열하는 아주 독특한 글을 많이 쓴다. “한국교회 주경사”란 글에도 이런 예외는 없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성서관을 단정적으로 피력했다. 물론 그 내용은 칼빈주의적이고, 성서에 근거한 논거제시를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의 경향을 말하고 있어 눈여겨볼 대목이다.

성경은 자증자(自證者)니 만큼, 그것과 같은 수준의 권위에 붙일 만한 기록은 없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야 해명된다. 사람의 마음을 짐승의 심리로써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상을 인간의 사상으로 설명할 수 없다.²

이제 여기에서 그의 글의 세 부분을 단계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자.

1. 한국교회의 초창기(약 1900~1936년)

박윤선은 여기에서 이 시대를 한국교회가 정통보수주의 신앙을 잘 유지하며 발전되어 갔던 때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 시대는 한국교회 주경사의 초창기로서 성서를 성서 자체로 해석하게 하는 칼빈주의적 개혁신학의 성서관이 부족했다고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

**박윤선은
한국교회의
부흥·발전과
건전한
신앙형성은
오직
정통적인
칼빈주의적
성서해석으로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다. 그의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로서는 그의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사가들이나 한국적 신학을 논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선교 초기에 속하는 이 시점이야말로 미국의 보수주의의 영향으로 장로교 계통에서는 매우 경건한 신앙양태와 철저한 칼빈주의 신학이 크게 작용했던 사실을 논증하고 있기도 하다.

박윤선의 유일한 논거는 성서 구역(舊譯)에 나타난 몇가지 용어의 번역된 개념 차이를 들어 그 근거를 밝히려 하고 있으나 사실상 그런 시도는 매우 논증적 힘을 갖기에, 그리고 전체 한국교회가 받아들이기에 미약한 단점을 갖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단정하고 있다.

우리 한국 초창기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우리는 많은 복음적 성쇠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성경 해석을 칼빈주의적으로 밝히 드러내는데 빈약(貧弱)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교회는 칼빈주의적 요소도 지니고 있었으나 오히려 복음주의적 경향으로 많이 흘렀고 적지 않은 약점들도 전승되어 내려왔다.³

박윤선은 한국교회의 부흥·발전과 건전한 신앙형성은 오직 정통적인 칼빈주의적 성서해석으로만 가능하다고 확신하면서, 이런 입지조건이 안된 한국교회의 현상에 세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한국교회의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고, 간증과 예화 중심으로 채워져 있다.

둘째, 한국교회는 세상 도피적 경향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교회와 사회는 유리되어 있다. 그러나 칼빈주의의 본래정신은 “신령한 천국

을 중시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현실과 사회정치면에서도 찾으려”하며, 이것이 칼빈주의의 성서관인데 그것이 한국교회에서 등한시 되거나 잘못 이해되고 있다.

셋째, 한국교회가 초창기부터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정확하게 해석해 전파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도처에서 왕성하다.

이러한 주장의 한국교회사적 논증을 일단 여기에서 보류하고, 그의 주장 자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 그는 한국교회 초창기의 신학노선은 칼빈주의적 성서관과 해석원리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성서연구가 빈약했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부흥회나 신비주의적 불순신앙운동이 활발해졌으며, 이것이 한국교회의 오늘의 잘못된 신앙양태를 주형했다.

둘째, 성서를 성서로 해석하려하기 보다는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세대주의(世代主義)사상이 한국교회의 건전한 발전을 망쳐놓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이유는 한마디로 왜 한국교회는 칼빈주의의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해석을 칼빈주의적으로 밝히 드러내는데 빈약했던가?” 하는 이유를 추적해 보려는 데 있다.

그 이유으로써 박윤선은 다음과 같은 자기 진단적 현상을 한국교회에 던져주고 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를 실행하려면, 성경을 역사적으로 또는 문법적으로 바로 해석하면서 실행해야 된다. 역사적 문법적 해석이 완전치 못하면 문구들의 표면적 의미만 가지고 서로 다르다고 하기도 쉽고, 서로 같다고 하기도 쉽다. 표면적으로는 서

메이첸의
근본주의 신학과
반틸의
변증론에 빠진
박윤선의
주석경향은
그의
스승들의
신학노선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로 다르게 보이는 귀절들이 이면(裏面)에 있어서는 서로 같을 수도 있다. 역사적 문법적 해석에 있어서 허약하였던 과거 한국교회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만족히 실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성경 해석상 그 풍부한 내용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초대의 한국교회는 근본주의(根本主義)가 농후하였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한다. 근본주의는, 구약을 신약으로 설명하는 것과 신약을 구약으로 해명하는데 있어서 언제나 빈약하다. 근본주의는, 구약 속에 신약이 예언됨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그렇게 된 사실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였다.⁵

성경의 사람 박윤선은 우선 한국교회의 현상을 이런 시각에서 이해하면서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궁극적 문제는 성서이해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스스로 먼저 성서를 올바르게 알고, 많은 무지의 신자들에게 성서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성서연구에 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진술은 그의 성서주석의 동기에서 분명히 표명되었다

나의 주석 저술의 동기는, 나 자신이 먼저 성경을 바로 깨닫고 깊이 안 후에 이 성경을 올바르게 증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성경대로 믿음을 가지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을 바로 깨닫고 그 깨달은 바 진리를 바로 전하려는 간절함 때문에 나의 마음은 항상 성경에 머물러 있었고, 동시에 성경 주석 저술에 기쁨이 있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아는 만큼은 확신하고 있으며, 또 내가 아는 그것을 형제

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불타고 있으므로 계속 붓을 들게 되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주석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만큼, 주석자가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글을 쓰는 때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나타내는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성경 진리의 차원인 인간의 사상과는 다르다. 만일 성경을 인간의 사상으로 주석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사상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큰 잘못이다. 그러므로 성경 주석자는 성경으로 성경을 주석하는 원리를 굳게 파수해야 된다.⁶

2. 현대주의 주석운동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메이첸의 근본주의 신학과 반틸의 변증론에 폭빠진 박윤선의 주석경향은 그의 스승들의 신학노선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1935년 감리교가 선교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번역·출판한 아빙돈(Abingdon) 단권주석에, 장로교 목사들인 송창근, 김재준, 채필근, 한경직 등이 번역으로 참여한 사건으로 한국 장로교계 내에서 박형룡 일파의 분노가 노출되었던 때 귀국하였고, 박 박사 밑에서 일했다. 극단적 보수파 박형룡의 거센 입김이 총회를 흔들었다. 이 일이 총회에서 문제되고, 해당자들이 성명서를 내어 해명하며 진정되는 과정에, 총회는 박형룡 박사에게 표준주석을 내는데 책임자로 일하도록 임명했다. 1936년 귀국한 박윤선도 극단적 보수주의 신학영향에 동참하며 점점 그의 성서관과 신학입장을 메이첸화하였고, 거의 제2의 박형룡의 모습으로 양각되면서 성서주석 사업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그 동기는 자유주의 신학을 한국 장로교로 유입되

이렇게
본다면
성서주석은
성서신학이나
성서학을
전문한
신학자들의
사업이기 보다는
영감 가운데
기록되는
영해작업
이어야 한다.

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와, 또 한가지는 언더우드-마펏(Underwood-Moffett)으로 대표되는 복음주의적 경건주의 신학성을 좀더 철저한 성서적 근본주의로 변체하여 한국 장로교의 신학 성향을 창출하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움직임에서 연유된 것이다. 이런 운동의 구체 세력은 박형룡과 그를 따르던 일군의 목회자들과, 특히 총회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들 가운데 일단의 세력이었다.

박윤선은 1936년 8월부터 2년 동안 총회표준 성경주석 편집부에 근무하면서 주석실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 2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성서주석의 요령을 터득했으며, 성서주석이 왜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다. 그가 발견한 성서주석의 참된 방법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래서 성서주석자는 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곧 경건하고 성령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성서주석은 성서신학이나 성서학을 전문한 신학자들의 사업이기 보다는 오히려 영험의 경지에서 영감 가운데 기록되는 영해 작업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그의 고백을 통해 성서주석의 참된 작업을 말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성경 주석자는 언제나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성경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시종일관 기도하며 힘써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주석자가 그 자신이 세속화되었거나 혹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 심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찾아낼 수 없다. 그는 거룩한 신앙과 경건함을 그의 생활 속에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⁷

위의 진술의 핵심은 성서주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단정적 진술이다. 그래서 그가 “성경주석에는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⁸

나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靈感)으로 기록된 것으로 믿고 성경을 주석하는 중에 어떤 난해 문구나 난해 부분을 만났을 때에도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 도리어 어떤 학자들의 불신앙적 이론을 비판하고 기쁨을 얻었다.⁹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영감을 받지 않고 그 영감의 책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논리에 따라 그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자만의 성서주석을 진정한 참주석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주석 때의 뜨거운 영적 체험을 말하곤 한다.

나는 성경을 주석할 마음으로 늘 뜨겁게 되어 있다. 이런 소원이 있었기에 신구약 66권을 모두 해석할 수 있었다. 나에게 성경주석 사업보다 기쁜 일은 없었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속히 책상으로 돌아가 성경해석을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나는 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다. 기차 여행때도 글을 쓸 수 있는 2등칸을 타고 주석을 하면서 여행하곤 했다.¹⁰

박윤선은 1930년대 후반기에 한국 신학계 일각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자유주의 신학운동을 경계하며, 자유주의 신학의 성서관이 축자영감설을 부정하고 성서 자체를 유대 민족의 역사적 기독교와 종교적 문헌 정도로 취급하며, 인본주의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을 비판하며,

그의
성서해석의
방법론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과학적 해석학의
방법론과
다른 해석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성서해석에 역사비평학적 접근 방법이 도입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요컨대 그는 자유주의 신학 입장에서 성서해석학이 성서를 종교적 혹은 일반 역사적 기록이나 문서 정도로 취급하는 것에 반대하며, 성서의 축자영감설과 무오성을 강조하였다.

나는 한평생 성경 무오(無誤)의 진리를 믿고 성경을 해석하는 등 때로는 자유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비판하여 왔다."

오직 성경만이 정확무오(正確無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하고, 성경을 바로 알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도적 전도(使徒的傳道)라고 믿으며,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왔다.¹²

박윤선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성서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있을 정도로 성서일변도의 신학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성서주의는 곧 자유주의에 대항적인 근본주의 내지 그 스스로 자랑스럽게 강변하듯 칼빈주의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20세기의 과학적 세계관이 그의 칼빈주의적 성서관에 어느 정도 작용했으며, 그가 공격하는 자유주의 신앙적 혹은 신학적 오류는 20세기의 과학적 세계관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비성서적이고 비진리적인가 하는 것은 좀더 철저히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우선 그는 대체적인 의미에서 자유주의를 현대주의와 동일한 사상으로 간주하며 현대주의 주석운동에 관한 특징을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다.

현대주의는 전통(傳統)을 기뻐하지 않고 언제나 개인주의와 자율주의를 취한다. 그러

니 만큼, 그것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인간의 철학과 합리에 의하여 문제들을 다루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해석으로는 성경에 내포되어 있는 부요한 영량(靈糧)을 끌어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빙돈(Abingdon) 단권주석은 영적 진리를 공급해 준다고 할 수 없다. 이 주석을 위시하여 자유주의 신학운동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운동 산하에 있는 신자들은 성경의 풍부한 영량(靈糧)을 받지 못한다.¹³

우리는 위에서 언급된 박윤선의 주장과 비판을 읽으면서 그 스스로 영적 진리를 제시하는 성서해석을 말하고 있으나, 성서무오성과 축자영감설 등과 같은 신앙차원의 고백 이외에, 순수한 문헌적 차원에서 그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 인간적 삶의 상황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면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성서해석의 방법론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과학적 해석학의 방법론과 다른 해석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점에서 우리는 그의 해석 방법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에 관한 논문이 결여된 점을 아쉬워 할 수밖에 없다. 그는 기회있을 때마다 늘 "성서를 성서로 해석하라"는 종교개혁 당시 칼빈의 주창한 원리를 반복 제창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서해석 방법에 관해서는 명쾌하게 논술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그의 최대의 약점이다.

3. 보수주의 주석운동

아빙돈 단권주석 사건 이후 총회의 표준주석 사업은 자유주의의 성서관에 대한 보수주의의 성서관의 도전이었다. 박형룡 목사가 표준주석 편집부장으로 일하였고, 박윤선 목사

그는
칼빈주의적
성서해석,
그것도
16세기의
시대정신에서
채택된
개혁주의 정신을
신봉한 나머지
오늘의
상황과 시대성을
무시한 듯한
오류를
범하였다.

를 비롯하여 여러명이 열심히 주석사업에 정성을 쏟았다. “이 표준 주석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수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함이었다.”¹⁴

그러나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우려는 급변해가는 세계관의 변화와 과학적 사고구조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되는 가치개념을 어떻게 성서의 이해와 해석에 도입할까 하는 것이다. 성서고고학의 발달과 성서해석학의 다양한 학파적 지류들이 역설하는 이론들을 언제까지 부정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여기에 있다. 박윤선은 표준성서 주석사업이 시작된 다음 거의 1세대가 지난 뒤 주석, 발간된 사도행전 서문에서 밝힌 박형룡 박사의 소망사항을 나열하면서 희망사항을 제시하는 듯한 분위기에 잠겼다.

박형룡은 그들의 표준주석이 ① 학구적, ② 비판적, ③ 통일적, ④ 실용적, ⑤ 정통적이기를 간절히 희망하였으나, 실제로 오늘날 표준주석은 더이상 한국교회 강단에서 사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표준주석은 출판과 더불어 이미 사장된 주석, 도서관 서가에서 위용을 뽑내는 것 이외에는 사용가치가 거의 절하되거나 무시되고 있는, 잊혀져가고 있는 주석이 되었다.

이런 현상은 표준주석의 학문성을 문제삼아 야기된 것이 아니고, 표준주석의 힘찬 발걸음이 시대 사조의 변화 속도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대성을 벗어난 세계관에서 과학적 세계관을 해석하기 어려웠던 점이 표준주석의 학구적 욕망과 실용적 욕망, 그리고 한국교회를 주도해 갈 통일적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희망사항으로 남겨놓고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다. 박윤선은 이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성서해석의 칼빈주의적 원론만을 역설했다. 그는 마치 칼빈주의적 성서해석, 그것도 16세기의 시대정신에서 채택된 개혁주의 정신을 신봉한 나머지 4세기 후의 오늘의 상황과 시대성을 무시한 듯한 오류를 범하였다. 그는 그가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 칼빈주의자가 된 것이라고 자랑하면서 더욱 이런 성서해석을 역설한다. 그의 신학사상의 본체를 이루고 있는 신앙고백은 다음의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다.

나의 신앙 성장 과정을 말해 본다면, 대학시절과 평양신학 시절에는 보수주의이면서 주관적 체험을 탐구하는 정도였다고 생각된다. 평양신학을 마친 후 도미하여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연구한 후부터는 칼빈주의(혹은 개혁주의) 신앙을 자각있게 붙들게 되었다.¹⁵

여기에 한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 박윤선은 보수주의에서 칼빈주의로 신앙양태가 변

▲ 신학용어 ▲ 사전 ▲

밀의종교(密敎家敎; mystery religions)

공식적인 민중종교들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종교적 체험들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길을 사람들에게 제공하였던 회랍과 로마시대의 비밀제전들을 말한다. 이러한 밀의 종교들은 지구 여러 곳에서 원시인들에 의해서 거행되었던 부족 의식들에서 유래되었다.

밀의종교들은 기독교 시대의 처음 3세기 동안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으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형태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었다. 밀의집단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공통된 식사와 공통된 춤, 그리고 의식들이다.¹